

11세 여아 납치 신고 했는데...경찰 이상한 수사 종결

광주서 납치미수 신고...신고 대상자 행적·전과기록 등 조사도 안해 경찰청 등 홈페이지 다시 사건 불거지자 뒤늦게 연락해 신원 확인 범죄 아나어도 두려워하는 신고자와 대상자 대면은 부적절 지적

‘소녀 납치미수’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 대상자의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를 한자리에 만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신고 대상자의 당일 행적과 사건 당시 행동 등을 체크해 혐의가 없었다면 신고자의 불안감을 없애 주기 위해서 양측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따른 혐의 유무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신고자가 상대와 만나기를 두려워함에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경찰지구대가 광산구 A입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신고 받고, 신고자(초등생 어머니)와 신고 대상 남성의 만남을 주선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남성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지만, 거주지

등이 노출돼 보복범죄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신고자와 1시간여에 걸쳐 마주하게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지은 지 30여 년이나 된 노후아파트로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등 범죄예방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으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 주민들 사이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과 주민에 따르면 A(11·초등학교 5학년)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A입대아파트 주차장에서 40~50대 보이던 남성으로부터 “아저씨 차 후미등에 붙어 들어오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학원을 가던 A양은 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는 데다 남성의 행동이 이상해 곧바로 뛰어 도망친 뒤, 인근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해당 남성의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아파트를 벗어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112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납치미수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진 속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문제의 남성을 파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다. 단지 내 CCTV가 없어 사건 파악이 어렵고, 신고자인 A양 어머니가 남성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이날 A양 어머니에게 “(A양에게) 후미등을 바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A양 옆에 시동 걸린 차량이 움직일 것 같아, 조심하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부모가 A양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아 후미등 발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A양의 부모가 사과성 발언까지 한 만큼 신고 대상자인 남성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A양 부모는 외부 접촉을 꺼리는 등 신분 노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겪는 부모의 경우 ‘더 이상 관련 사건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신고 대상자를 만날 경우엔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자가 신고 대상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반 단순 범죄 신고가 아닌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신고라는 점에서 경찰이 최소한 ▲여자 초등학생이 두려움을 느끼고 신고까지 하게 된 점 ▲CCTV가 없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점 ▲아파트 관련된 일을 한 남성(신고대상자)의 당일 방문 목적 등 근거 무행적 및 전과 기록, 생활 반경내 유사사건 여부 정도는 내사·탐문을 해서라도 살필어야 한다는 게 범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발생 건수는 각각 4건, 2건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A양 부모는 외부 접촉을 꺼

리는 등 신분 노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겪는 부모의 경우 ‘더 이상 관련 사건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신고 대상자를 만날 경우엔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자가 신고 대상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반 단순 범죄 신고가 아닌 여자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신고라는 점에서 경찰이 최소한 ▲여자 초등학생이 두려움을 느끼고 신고까지 하게 된 점 ▲CCTV가 없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점 ▲아파트 관련된 일을 한 남성(신고대상자)의 당일 방문 목적 등 근거 무행적 및 전과 기록, 생활 반경내 유사사건 여부 정도는 내사·탐문을 해서라도 살필어야 한다는 게 범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발생 건수는 각각 4건, 2건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A양 부모는 외부 접촉을 꺼

은행 중 돌아다니지 말라는 버스가 폭행 40대 집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은행 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요구한 버스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 관에까지 폭력을 휘두른 40대에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은행 중인 버스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또 “A씨의 범행으로 자칫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특히 A씨는 폭력범죄를 비롯해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훈청, 호국의 달 다채로운 행사

광주지방보훈청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보훈청은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말라라 나라사랑 피크닉’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말 가족 축제인 ‘2019 아트피크닉’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보훈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보훈 보물 창고·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현충시설 인증샷 찍기·태극기 강동열차 타기·보훈 라인아트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놀이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공연으로 천무연구회가 태권도 격파시범을 보이고 ‘빛고를 의장대’가 의장대 시범을 선보이며 불거리를 더한다.

11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빛고을체육관에서는 6·25전쟁 등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보훈 어벤져스 And 게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학생들이 게임을 함께하며 진정한 영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다. 선수입장, 국민예례, 국가유공자 소개, 레크리에이션, 미니올림픽, ‘국가유공자 리즈 시절을 찾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집중 단속

다도해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여름·가을철 야외 레포츠 활동(등산, 야영, 낚시 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일까지 불법행위 사전예고 순찰을 한다.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15일부터 10월까지 집중순찰을 한다. 다도해해상국

립공원 사무소에서는 5개 지구(소안·청산, 거문도·백도, 팔영산, 나로도, 금오도 지구)일원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흡연·오물투기 등을 단속한다.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후세에 물려주고,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충일 추모공연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톨음무용단이 추모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완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 단속

선불금 갈취·감금·폭행 등

완도해경이 7월 12일까지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각지대 인권유린 근절을 위해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및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구직난을 악용한 무허가 선원소개와 모집 행위 ▲해상종사자

의 하급자 폭행 ▲인권유린 행위 ▲선원의 선사 불법 협박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의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벌초 갔다 천종산삼 21뿌리 발견



문중 선산에 벌초를 간 50대가 감정이 1억 원이 넘는 70년 이상 된 가족 천종산삼 21뿌리를 발견. <사진>

○6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고모(50·담양군)씨는 지난 2일 낮 12시께 조부 묘에 모셔져 있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문중선산에 벌초를 갔다가 총 21뿌리로 군락을 이룬 가족 천종산삼을 발견했다는 것.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감정 결과 고씨 가 캔 산삼은 길이는 30cm 안팎이며, 총 무게가 75g(2냥)에 달해 1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서상록 협회 감정 위원장은 “이 산삼들은 짙은 황색을 띤 형태로 미뤄 화산에서 주로 자라는 동북산으로 보인다. 심마니들도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산이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